

주간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07

Jul. 2014
Vol.2 No.6

- 주안에훈련 수료
- 힐링캠프 준비
- 교육부 프로그램
- 칼럼 / 화보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 제1기 주안에 힐링캠프 준비



“새로운 패러다임, 회복과 치유의 천국잔치”

기대하세요. 결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제 1기 주안에 힐링캠프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8월 24일(주일) ~ 27일(수)까지 빅베어 파인 크레스트에서 진행될 주안에 힐링캠프는 기존의 T.D. 개념을 탈피하여 오직 말씀, 찬양,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의 회복과 치유, 구원의 감격과 영적 성장을

체험하는 천국잔치가 될 것입니다. 최혁 목사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되지 않으십니까? 주안에 힐링캠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의 본질을 쫓아 주안에교회가 추구하는 캠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

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오는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안식과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 1기 주안에 힐링캠프에 많은 성도님들이 Seeker(구도자)로 참가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랍고 가슴 벅찬 시간을 경험하시기를 기대하며 적극 추천합니다.

■ 주안에교회 1년을 돌아보며...

“이땅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

벅찬 감동과 감격, 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개척 예배는 주안에교회와 모든 성도의 삶에 결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안에교회를 이땅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없는 계획이며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적인 계획과 인도하심이 예측되고 계획되지 않은 일을 행하셨으며 부족한 우리의 의지로는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아버지의 측량 못할 능력과 은혜가 벌써 세번의 걸음을 마침으로 다음 걸음을 기대하며 온 성도가 순종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악했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달려온 일년, 지치고 힘든 마음도 있었지만 함께하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지금이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겁결에 달려온 일년 개인적으로 그토록 회복하고 싶었던 첫사랑을 사모하던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남은 주안에교회 개척에 동참케 하신 아버지의 은혜로 시작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내 경험과 지혜 지식으로 이루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이루어 주시려지란 세월을 시험과 연단을 통해 다듬고 준비시켜 낮아짐과 인내를 가르쳐 내 서원을 이루워 주시려 이곳에 보내셨음을 깨달았을 때 내가 나 된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나의 삶이 내 삶이 아닌 보내신 이의 뜻과 계획이었음을 알았고 나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 드리며 눈물로 회개 하였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성전을 향하는 성도님들이 어찌나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드렸습니다. 주안에서 한 가족임이 자랑스러웠고 예배마다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충만함이 기쁨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 믿는 맛을 아는가? 이 맛을 아

냐고 소리치면서... 주안에교회는 이제 겨우 한살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시고 계획하신 많은 일들을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두살 세살 열살..을 맞을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지고 세우실 어떤 교회보다 이 세대를 향한 복음의 통로요 영혼구원을 위한 천국의 통로가 되어 세상과 사람 앞에 당당하고 세상이 바라보아도 투명하여 하나님과 예수의 십자가만이 보이며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것이 자랑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동하는 교회 되어 주님의 향기가 풍어나며 이땅을 변화 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교회되길 헌신과 믿음으로 충성하여 승리하길 기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희철 장로

■ 주안예살 • 통독 프로그램 수료자 감사예배



이정미 "평사원"스텝



이강민 집사



애나 김 집사



이원근 집사



윤찬임 권사



박진영 집사



오희경 권사



황중훈 집사



은종인 자매



고혜실 권사

말씀 통해 하나님 만나고 훈련 통해 성장하는 기쁨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 벨리채플에서 주안예교회 평신도사역훈련원(이하 평사원)이 주관한 주안예살 1~4기, 주안예생명, 주안예말씀 1기 수료자 감사예배를 훈련 수료자, 교역자, 시무장로 등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렸다.

이성우 전도사의 찬양인도, 김진석 장로의 기도과 함께 예배는 시작되었고, 이어 평사원 이정미 집사는 그동안 진행된 주안예훈련 수료자, 인도자 명단, 진행과정, 수료자 설문 결과 등을 PPT를 활용하여 소개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안예말씀 1기 중 벨리채플은 2014. 2. 2~6. 5일까지 18주간 목, 주일반 수료자는 38명이고, 세리토스 채플은 2. 2~6. 8일까지 18주 매 주일에 진행되었고, 수료자는 42명으로 총 80명이 주안예말씀 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안예생명은 최혁 목사의 인도로 종말론을 훈련하였으며, 5월 31일 벨리채플 222명, 6월 21일 236명 등 총 458명이 신청하였으며 중복신청자, 불참자가 소수 포함되어 있다.

주안예생명 훈련으로 인해 새가족 등록과 교육에 참석하는 인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주안예살 훈련과정은 세리토스 채플이 2013. 7~2014. 6월 말까지 4기 28주로 진행되었으며, 수료인원은 총 111명이며 인도자는 10명이었다. 벨리 채플은 2014. 2~6월 말까지 2기 14주 진행되었으며, 수료인원은 총 112명이며 인도자는 11명이었다.

2014년 6월 주안예살 훈련생 중 세리토스 4기, 벨리 2기 훈련생 60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 내용은 교재, 훈련 진행, 훈련 인도자, 기타 및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였다.

교재의 도움, 적용훈련이 각 90%, 80%의 긍정 응답이 있었고, 훈련 진행 중 다양한 숙제, 목상 훈련이 각 82%, 87%의 긍정 응답이었다. 훈련 인도자에 대한 의견으로 진행방법, 열정 태도, 인도자에 대한 재훈련 희망이 96%, 100%, 93%의 긍정 응답이었다.

의견 및 건의사항은 다양한 내용이 있었다. 함께 훈련하는 멤버들의 간증과 격려가 힘이 되었다. 기초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신앙생활하며 지나쳤던 매우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나눔의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평신도 리더들의 훈련이 더 필요하다. 주일에도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등

다음 순서는 김태현 집사의 진행으로 주안예살, 주안예말씀 수료자들의 간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다.

주안예살 간증자는 이강민 집사, 김 Anna 집사, 이원근 집사, 김용기 집사였고, 주안예말씀의 간증자는 윤찬임 권사, 박진영 집사, 오희경 권사, 황중훈 집사, 은종인 자매, 고혜실 권사였으며, 일부 간증 내용이 주안에 소식지에 소개될 예정이다.

최혁 목사는 예배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사원의 노고를 격려한 후 간증자들의 간증에 고마움을 표하며 "지난 1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라며 우리 주안예교회 성도들이 양육훈련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련의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을 표하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계속 진행될 훈련에 참가하여 자신의 신앙성숙을 위해 노력하기를 당부했다.

| 김경일 기자 | 관련 간증문 9면

■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NEX-Gen had our summer IC InTune & IC InHim Retreats on June 25-28, 2014. The theme of the retreats was "Deep" with the key verse, Luke 6:48. The vision & missions for the retreats were: 1) salvation & rededication of souls 2) deeper relationship with Christ through obedience



■ Reflection

... Brothers in christ ...

ICY summer retreat 2014 was a much needed time where I was able to mend my relationship with God. Months before retreat all of my college acceptances and rejections had already come in. After receiving these letters my interaction with God nearly stopped and I was slowly drifting away. However, this retreat was able to help me find my way back to my relationship with God.

I felt God's presence on the very first night of worship where we got into small groups and shared about problems in our lives. Edward was a member in my group and his story really changed my perspective. Near the beginning of this year Edward's father passed and recently his mother was having health problems of her own. He shared how he was angry with God, but in the end his

relationship became even stronger through these hardships. After listening to this story I was so ashamed of myself. I took God for granted when I needed him and threw him aside when I did not need him. This made me realize that I had to rely on God at all times and not let my selfish desires drive my relationship with God.

Edward wasn't the only person that God used to bless me. Another friend, Jonathan, was used to show me God's love and power. Weeks before retreat and during retreat Jonathan kept talking to me about his relationship with God and how he was filled with doubt. The source of this doubt was from the troubles he faced with academics and friends. I prayed for Jonathan throughout the retreat and on the last night he was jumping up and down filled with joy.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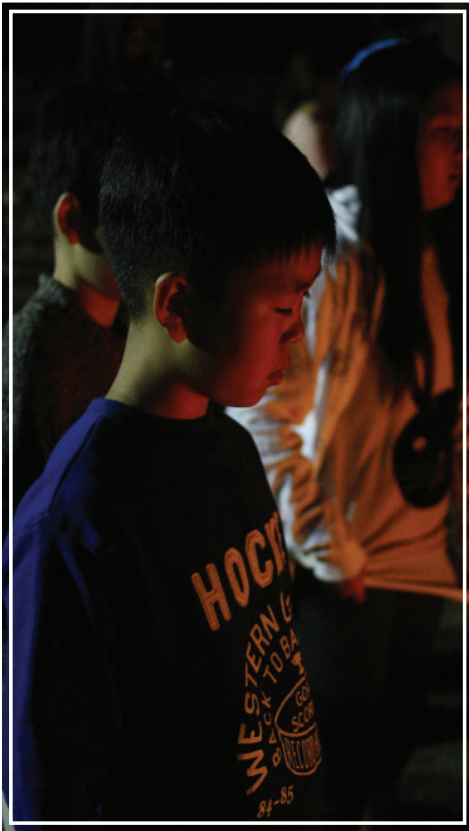
knew that the doubt he was having had been lifted and that the relationship he wanted with God was finally there. Jonathan slowly came over and began praying for me. During this moment of prayer, I broke down crying and felt the love of God upon me. Jonathan was able to solidify his belief and show me again the power of God.

I was blessed constantly throughout this retreat not only through the speaker but also through people my age. I was able to learn important lessons from friends who shared similar problems and situations. ICY summer retreat was a great way to solidify my belief before heading off to college in the fall. I Derek Chang, IC InHim



3) bonding between Valley & Cerritos youth groups. At the retreat, we experienced the zeal & love of God an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God showed up and answered our prayers & more. Praise the Lord!

IC InTune & IC InHim Retreat ■



■ Reflection

... A Transformed Life ...

Hi, my name is Kaylee Kim and I'm in 8th grade. This retreat was actually totally different from what I expected. I thought that this retreat would be like no other and that nothing would actually come out of it. However, this retreat changed my life.

On the first day, I was really excited to go to retreat and to leave my house alone to have fun with all my friends. At this point, I thought it was all about the fun and just getting to stay 4 days and 3 nights just with my friends. In the worship room, we got into our assigned groups and made a group name, ours was AJ (Always Jesus). Then, we had some bonding time with the other groups, The Orange Tree, All Stars, and The Miner Niners.

Well, skipping through, it came time for the first night service. Our guest speaker for this retreat was Pastor Dustin. Pastor Dustin

was a really cool and a lot of us liked how he had such a soothing voice, well, us girls did. His sermons were really great and were really effective to me. After the service, we had some time to pray, some of us call that time "cry night". We took that time to truly commit ourselves to God, but this night, I didn't really do that. After all the prayers ended, it was time to go to sleep. Then, came the next day, and another day closer to truly encountering God. This day was a little different. We did many outdoor activities like archery, scavenger hunt, water balloon toss, and other water related activities. Moving on, at night, we all gathered at the campfire and just had a blast singing along to some songs and arm-wrestling.

The next day was the day that I truly encountered God. So, this day was the second

last day, so that meant swimming, skits, and etc. All the skits were great and each had a different story about Luke 6:48. Later that night was when I truly met God. I just felt so touched by God and at that point, I couldn't stop thinking about how far apart I was from him through all these years. Then we had time to go around and just pray for each other. It was so amazing to see everyone just reaching out to God and truly accepting him into their hearts.

After this night, everything changed and when I got back home I decided to be nicer to my sister, even though we still have our fights, our relationship got better. I hope that many others got something amazing out of this retreat.



| Kaylee



달려라 구원열차~!



4th of July 패션 자매



명 콤비 MC 탄생



특별게스트 아름다운 찬양



“와우...오...원더풀!” 환상의 밤하늘



“더 드세요” 불꽃놀이도 식후경



‘주안에 즐거워’
VBS/초등부캠프

■ 문학과 삶

말을 위한 기도

이해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 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등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
의 얼굴은 잊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물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
선가 뿌리를 내렸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괜히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살아 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실을 해도
슬기로운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지껄이지 않게 도와 주시어 좀더
겸허하고 좀더 인내롭고 좀더
분별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 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마더 테레사는 “한마디 친절함 말이 아무리 짧고
단순해도 그 메아리는 끝없이 퍼져나간다” 고 했습
니다. 이에 지혜의 교훈 잠언에 있는 말에 대한 말
씀들을 모아봅니다:

- 명철한 사람의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숫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
를 자청하느니라.
-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
서 뱃속 깊은데로 내려가느니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경고
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은쟁반에 담긴 황금사
과 같은 말을 순간순간 정성
스럽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서미숙 기자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키 아이디어

해.물.스.파.게.티

1. 재료 (2인분 기준)

새우, 홍합(1.5~2 lb) 또는 해물믹스, 0.5 lb
스파게티 국수(Whole Wheat), 토마토 소스 1
병(680g, 마켓에서 구입가능), Cilantro 또는
Basil(잘게 다진 1큰술), 송이버섯(7~8개), 양
파(½개), 버터(1큰술), 화이트 와인(1큰술), 올
리브 오일(1큰술), 후추(약간), Parmesan 치즈
가루(약간)

2. 만드는 법

- 1) 스파게티용 냄비에 적당량의 물을 넣고 끓인
다.
- 2) 팔팔 끓은 물에 1작은 술 오일을 넣고 준비된
국수를 넣어 중불에 15~20분 정도 끓이면서 가
끔 젓는다.
- 3) Cilantro 와 양파, 버섯은 잘게 썬다.
- 4) 소스용 냄비를 달군 후 버터를 넣어 둘러준
후 잘게 썬 양파와 버섯을
넣고 살짝 볶은 후 그 위에
손질한 해물을 넣어 화이트
와인을 해물 위에 둘러 주
고 뚜껑을 닫고 2~3분 정
도 끓인다.
- 5) 냄비 뚜껑을 열고 토마



- 6) 토 소스를 부어 저어주면서 5~6분정도 끓인다.
- 7) 다 된 국수는 체에 건져 물을 뺀 후 얼음 물 또
는 찬 물에 잠깐 담갔다 체에 걸러 준다.
- 8) 뜨겁게 달군 후라이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
르고 물기를 뺀 국수를 넣고 후추로 간하여 잠
깐 볶는다.
- 9) 예쁜 스파게티용 접시에 국수를 담아 소스를
붓고 그 위에 잘게 다진 Cilantro를 뿌려준다.
- 10) 취향에 따라 Parmesan 치즈가루를 뿌려 내
어 놓는다.



오윤선 집사

나의 십자가 My Cross

이정은 목사 (목회자교구)

땅이 열린다
녹슨 못자국

별의 눈들이
상처를 빛낸다

손, 발의 핏방울
하늘을 적시고

사랑이 피는
마음 한송이

나의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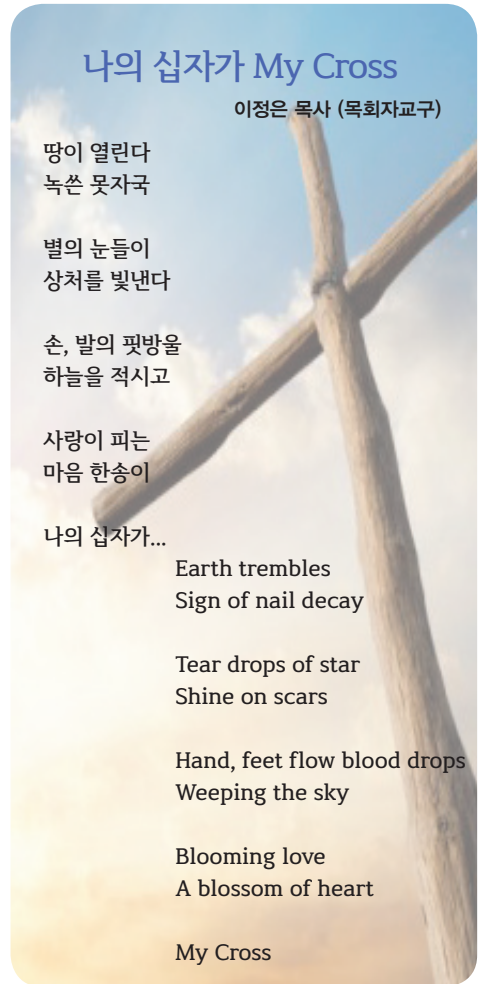
Earth trembles
Sign of nail decay

Tear drops of star
Shine on scars

Hand, feet flow blood drops
Weeping the sky

Blooming love
A blossom of heart

My Cross



■ 주안에훈련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애나 김 집사/ 주안에삶 3권 수료자

주안에 교회가 개척하고 처음 시작하는 양육훈련에 관한 광고가 주보에 실렸습니다. 최혁 목사님이 성경공부를 시작하신다고... 그리고 등록 교인이어야 한다는 말에 그동안 미뤄왔던 교회 등록까지 급하게 마치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반복된 광고를 보니 전혀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최혁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교재며 여러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심기가 들면서 어쩌면 시간낭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순종”이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삶 1권의 훈련을 시작하면서 더욱더 깨달아 갔던 것은 그 알고 우습게 보였던 이 교재가 새롭게 저의 믿음의 뼈대를 세우게 해주었습니다. 저를 위한 맞춤형 교재였던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풍요로운 삶의 훈련기간은 세상 속에서 미련함과 죄악으로 꽂차있었던 나의 영혼의 때를 광야의 버려진 그 흙으로 벽벽 비벼서 벗겨내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의 양육과정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하였고 그 두 팔을 향하여 달려가게 했던 통로였습니다.

1권을 시작하려할 때 저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삶 1권을 시작하면서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풍습 가족들에게도 간절한 저의 기도제목을 부탁드리게 되었고, 저 역시 날마다 기록한 독서와 예수 복습 소감문 등 숙제를 하다 보니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엔 어느새 두려움은 간데없고 저의 생각의 시선이 나의 문제에서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저의 마음속은 파스한 평화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힘들게 유학하고 있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딸이 이 바로 옆에서 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엄마인 저보다 더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딸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 2권이 끝나 갈 즈음에는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좋아하며 그리고 좋은 인컴이 되는 일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꼭 맞는 응답으로 현실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드디어 3권이 끝날 즈음에는 가장 소원하고 있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평화와 감사를 놓치지 않는 길을 구별하여 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을 다 갖은 것보다 더욱더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절제와 변화를 경험한 통독 18주”

오희경 권사/ 주안에말씀 수료자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성경을 읽어오면서도 마음 속으로, 처음부터 순서에 따라 읽어보고 싶은, 어떤 갈증같기도 하고, 밀린 숙제같기도 한 불편함이 늘 있었습니다.

혼자서 무작정 시도를 해본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매번 시작만 참대하였고 점점 미약해지다가,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중단되어 버렸음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면 나약한 저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리화를 시켜서 스스로 위로를 받고 다시 당당해지곤 했었지요.

그러던 중 “주안에말씀”이라는 성경통독클래스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강제로라도 해야할 수밖에 없는 뻘뻘한 스케줄과 이번에는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저의 강한 열정이 연합하여서 기적같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이 순간을 위하여서 그동안의 나약함을 허락하신게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주안에말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18주 동안의 저의 삶은 놀라운 절제와 변화와 기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무실에서 바쁜 일을 처리하고나면 습관적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온갖 세상 것들을 검색하고 도전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했는데 너무도 바쁜 호흡을 감당해 내느라 틈만 나면 컴퓨터 대신에 성경을 펼치게 되었고, 외출도 자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왜 그리도 빨리 흘러가는지요.

차츰차츰 의무감보다는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힌 성경 읽기는 평소 에 매우 생소하게 여겨졌던 구약의 “아모스”, “오바디” 나 신약의 “빌레몬서” 까지도 모두 접해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조금씩 혼동되었던 인물들의 시대적 정리가 되고 나니 마음속으로만 품어왔던 궁금증들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색다른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식이 습득되어가는 기쁨도 컸지만 점점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다윗의 애절한 마음도, 사도바울의 담대한 마음도 소망처럼 저의 마음을 물들여갈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은 더욱 크게 열려가고 나약하기만한 제 자신은 더욱 작아져만 감을 느꼈습니다.

길다고 느껴졌던 18주 과정이 끝나고 나니 꼭 성지순례를 한바퀴 하고 온 기분이 듭니다. 저의 지나친 상상력이 가져다 준 선물이 아닐까요?

이제는 제2, 제3의 여정도 기쁨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또다시 색다른 은혜로 제 마음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주안에말씀”의 과정 중에 늘 저의 생각과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주신 성령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울러 잘 이끌어주시고 성대한 종파티까지 마련해 주신 두분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목회자 칼럼

참된 쉼, 세상 일 중단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라

모든 직장인들에게 연중 가장 기다려지는 휴가의 시즌이 왔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일수록 이 휴가가 더욱 값진 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휴가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직장·학교·군대 따위의 단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쉬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을 피해서 떠난 휴가가 일정을 무리하게 잡아서 오히려 더 피곤한 일로 마쳐진 것을 많이 봅니다. 휴가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휴가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20:8) 여기서 “안식”이란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휴가인데 그 뜻을 히브리 원어에서 찾아보니 “쉬하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중단하다, 멈추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중단할까요? 일을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까지 성경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했다면 7일째는 하나님이 쉬를 갖은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라고 창세부터 세운 하나님의 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을 중단하고 쉬”이라는 휴가의 개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일을 쉬어야 하는데 사역을 한다? 안한 다? 온전하게 쉬는게 무엇 이냐? 궁금해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신5:15) 여기서 애굽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충실한 인본주의와 세속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애굽의 종노릇되어 일하던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 사건을 안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훈련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하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은 너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광야에 나가 열심히 일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



박정환 목사

에는 너희의 소욕과 필요를 위한 일을 중단하라고 공급을 멈추십니다. 인간적 필요와 욕구를 위한 일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기록합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안식일인 제 7일에 허락되는 일이 소개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나 성회로 모이는 일입니다. 이날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각 처소에서 성회로 모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안식일이란 세상과 나의 필요들을 위한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의 개념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에 성도여러분, 우리는 참된 쉼을 찾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지만 오히려 더 지치거나 일시적인 충족밖에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세상 일을 중단했는데, 다시 세상일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일을 중단했다면,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의 휴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열리게 되는 주안에 힐링캠프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참된 쉼의 시간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주안에서 참된 쉼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0이며 광고수익은 선금 구제현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주안에
교우
비즈니스
소개



BDO | commercial wholesale lender
"The Bridge to Capital Markets"

Stella Son
Director

Main Office 4322 Wilshire Blvd. #301 Los Angeles, CA 90010	Downtown Office 1016 Towne Ave. #209-210 Los Angeles, CA 90021
---	---

Cell: 213.810.1230 Tel: 323.761.7505
Fax: 323.761.7507 stella.son@bdo.com
www.bdo.com Commercial Finance Lender License #603 J429



NEWSTAR Realty & Inv. 뉴스타부동산
www.newstarrealty.com

Cindy Lee | Vice President
C) 818.621.8949
T) 818.881.2300 (F) 818.495.2508
E) cindy.lee@newstarrealty.com
cindy.lee@icccnews.com
11259 Charworth St. Granada Hills, CA 91344
BREP: 01303681
MLSR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정원 공사

Tel: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sfastfoto@hanmail.net
294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OVERED CALIFORNIA Certified Insurance Agent
공인 에이전트

Cell. **213.713.9191**

Sang B. Kwon 권상복
sangbkwon@gmail.com
CA Ins. Lic #0H59734

- 생명보험
- 건강보험
- 은퇴연금
- 사업체보험
- 주택보험
- 자동차보험

■ 평신도 글

“행복한 토요일산행, 한 번 해 봐!”



Santa Clarita 에 소재한 Placerita Canyon. 벨리채플에서 약 6-7마일 가량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지금은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등산로가 있다.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를 마친 후 성가대원 중심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7시에 출발하여 그곳에 도착, 왕복 9마일 4시간 정도의 산행을 시작한 지 어느덧 4개월이 되었다.

처음보다 조금 낯선(?)해진 내 모습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격려와 성원에 이제는 토요일산행은 내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과제가 되었다.

평소에 운동하기에 게으른 난 그저 걷기 정도는 선호한 편이어서 가끔 새벽기도 마친 후 교회 건너편 산책로를 서너번 올라간 경험의 엔 등산은 처음이었다. 그러다가 금년 4월 첫째주 토요일 겁없이 산행에 뛰어들어 첫 테이프를 끊는다.

평지 길을 2마일 정도 걷다가 오르막 코스 시작되는 길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된다. 점점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차오르는 숨이 턱에 걸려 호흡이 가빠지고 내 숨소리에 귀가 시끄러울 정도였으니 누가 옆에 있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었고 정말 힘들어 돌아가실 것만 같았다.

중간쯤 쉬는 곳에 이르렀을 때 먼저 올라온 동지들의 격려와 위로가 마구 쏟아졌다.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잘 한다고, 이제 얼마 안남았으



니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물론 그 말은 믿지 않았지만 긍정의 언어들엔 지치고 피곤한 몸을 추스리기에 충분했다. Nice 한 동지들!

마지막 반 마일은 완만한 경사, 이 길은 울창한 나무들과 잎사귀로 하늘을 가리워 그 사이로 내려오는 햇살은 너무 아름답고 피톤치드(phytoncide)의 짜릿한 순간을 만끽한다.

또한 흠을 났을 수 있다는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지...

조금 전 힘들었던 가파른 길 경험을 자연히 잊게 만들 정도로 몸, 마음, 영혼까지 힐링되는 것 같다. 정상에 이르기까지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 함께 곁에서, 뒤에서 기다려주고 내 걸음에 발 맞춰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던 고

마운 동지들!

연세 많으신 장로님은 젊은이 무색할 정도로 어찌나 잘 걸으시는지, 대장님이라 불리는 집사님은 마치 날아다니듯이 뒷 모습 보기가 힘들 정도다.

마침내 정상에 올라 한 숨 돌리며 각자가 싸 갖고 온 과일, 야채, 삶은 계란, 견과류 등을 나누며 흐르는 땀을 시원한 바람과 함께 날려 버린다. 각자 지난 일주일 삶을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

하산하면서 올라 왔던 길을 내려다보니 헉! 이렇게 높은 곳을 올라 내가 온거야?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만 달리 숨이 차지 않아 훨씬 쉬웠지만 그또한 만만찮은 거리였으므로 몸은 거의 그로기 상태였다...

집에 도착하니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았다.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아침에 거뜨히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자기 전에 꼭 타이레놀 2알 먹고 자라고 한 말 때문이었다. Thanks, 안 brother!

전체적으로 건강이 좋아졌고 무게도 줄었으며 머리가 맑아져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날을 살고 있음은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다.

금요영성예배 중 설교말씀을 떠올리며 묵상, 기도, 찬양을 맘껏 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행복한 산행인 것이다. 만나는 분들에게 전한다. 우리 나이엔 이만한 게 없어. 한 번 해 봐!

| 오병순 집사 |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FD 1134

Daniel Ahn
Counselor
Cerritos & Norwalk

12325 E. Rosecrans Ave. Tel: 562.868.0788
Norwalk, CA 90650 Cell: 213.507.1313
daniel@HankookMortuary.com Fax: 562.868.2808

MetLife

Kyung (Kenny) Kim
Financial Services Representative
CA Insurance Lic. # 0C41666
Registered Representative
Investment Advisor
Representative

MetLife of Southern California
150 S. Los Robles Ave., Suite 750
Pasadena, CA 91101

Direct (626) 755-2181
Cell (818) 307-4894
Fax (626) 755-2169
kkim5@metlife.com

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mpany (NY), New York, NY 10168.
Securities and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offered by MetLife Securities, Inc. (MSI FINRA/SIPC),
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 MLC and NY are MetLife Inc. companies.

Amway
Yong Soo Kim's shop

Get your daily dose of color
The NUTRILITE® Perfect Pack for your health can help you fit in your nutritional goals. NOW! available in NEW! Amway.com packaging.

Visit my Website
AMWAY.COM/YKIM

Kim, Yong Soo
213) 268-8711

John Koo
General contractor

949 374 0311
jkoo89@hotmail.com

All Goodman Construction Co.
Sincere, Honest, Experience,
Knowledge, Trend, Sense

Addition, Remodeling, New const., Landscape
Repair, Maintenance, Any type of construction

Lic # 965466
Bond, Insured, Warranty

주안에
교우
비즈니스
소개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그동안 찬송가 산책에 소개된 찬송가의 작사자들은 한결같이 불우한 인생스토리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슬픔과 역경과 고난의 사연들은 반전되어 아름다운 이야기로 승화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죄짐맡은 우리 구주”를 쓴 ‘조셉 스크리븐’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상황에 내 던져져 크나큰 아픔을 겪었지만 끝내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한 사람입니다.

“죄짐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가 쓴 이 찬송가야 말로 어릴적 부터 늘 불러서 귀에 익숙해진 애장찬송가라 할 만 합니다. 소년시절 예배당 밖에서 조차도 가끔 흥얼거리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곡을 작사한 아일랜드 출신의 ‘조셉 스크리븐’ (Joseph, Scriven; 1810-1886)은 청년시절 가문의 전통에 따라 직업군인이 되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때문에 방향을 바꾸어 문학을 전공하였는데 이 기간 중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합니다. 대학졸업 후 그는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 하루 전날 약혼녀가 말을 타고 그의 집을 향해 다리를 건너던 중 그만 말에서 떨어져 강으로 추락하여 익사하고 맙니다. 그는 이 사고를 강 저편에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스크리븐은 이 사건의 충격으로 아일랜드



드를 떠나 캐나다 포트호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신앙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노력으로 ‘캐서린 로체’라는 여인을 만나 1849년에 두번째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계속 되었습니다. 약혼녀 캐서린이 결혼도 하기 전에 폐렴에 걸려 약 4개월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약혼녀를 잃고 비탄에 빠져 수 년을 염세적으로 비관하며 지내던 그에게 1857년 어느 날엔 아일랜드에 있는 그의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찾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매우 안타깝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편의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병환 중에 시달리고 있는 어머니에게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보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롭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아니 아뢰까~” 이때까지만 해도 ‘죄짐

맡은 구주’란 이 찬송시는 이렇게 1,2절만 완성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에게도 위로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과 그의 일련의 커다란 고통이 이런 간절한 신앙고백을 낳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독신으로 살면서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미친듯이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로 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합니다. 그래도 그의 복음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상수훈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대부분의 옷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가난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아온 그가 오랫동안 아일랜드를 방문 했을 때에는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를 본 고향 사람들은 조롱과 조소를 보냅니다. 이 때 이 찬송시의 3절이 탄생합니다. “세상 친구멀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작곡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 태생의 음악가이며 법률가로 많은 찬송곡을 작곡하였던 찰스 크로자트 콘버스(cc. Converse ; 1832-1918)가 1868년에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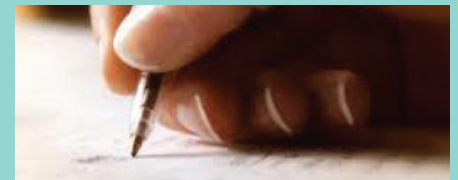


서세건 기자

“주안에” 2014년 8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김경일, 조이 메기, 새라 리, 박창신, 서미숙, 서세건, 이재호, 이지혜, 조용대, 채은영 (기자)
안동윤, 브라이언 조 (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세리토스채플/ 오전 8:00, 10:00
밸리채플/ 오전 10:00, 11:45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저녁 7:45 다우니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세리토스채플/ 새벽 5:30 비전채플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